

# 깨고 잠들어 있음이 한결같은 경지



## 19 오매일여(상)

‘오매일여(痲一一如)’란 ‘깨어 있을 때나(寤) 잠들어 있을 때나(寐) 똑같다’는 뜻으로, ‘오매항일(痲痲恒一)’ ‘오매상일(痲痲常一)’ 또는 ‘몽교일여(夢覺一如)’라고도 합니다. 그 뜻은 첫째 ‘오매를 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라.’ 즉 ‘오매에 대하여 분별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자나 깨나 지극정성으로 참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매일여에 대하여 근래 참선자들 사이에

의 영향이고, 멀리는 몽산 화상(1231~1308?)의 영향입니다. 몽산 화상은 간화선을 대성시킨 대해 선사(1089~1163)의 <서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대해 선사는 담당문준(湛堂文準, 1061~1115)과 현사사비(玄沙師備, 835~908), 그리고 <능엄경> 10권 상을 변마장에 나오는 ‘오매항일(痲痲恒一)’이라는 말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에서 ‘오매일여’ 즉 ‘오매항일’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능엄경>입니다.

그런데 용어는 다 똑같지만 사용하고 있는 뜻이나 용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몽산 화상은 <몽산법어> 총상인장에서 “화두를 들고 있는 상태가 깨어 있을 때(寤)는 물론이고 잠을 잘 때에도 성성(惺惺, 생생하게)하게 되어야 한다(痲痲惺惺, 話頭現前)”고 하여, 실제 잠 속에서도 화두를 놓지 말아야 깨닫게 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몽산 화상의 해석에서 더 발전하여 오매일여가 되지 못했으면 그것은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말

이와 같이 여쭙었더니, 원오 선사께서는 두 손을 내저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런 망상은 그만 두게, 그런 망상은 그만 두게, 그대가 말하고 있는 허다한 망상이 모두 단절되면 그 때는 저절로 오매항일이 될 것이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매일여에 대한 두 선승의 대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선승의 대화를 요약해 본다면 대해 스님은 스승 원오 선사에게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낮처럼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자신(대해)은 그렇지 못하니 이래가지고서 꼴이 되겠느냐”는 뜻이고, 원오 선사는 “오매일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부질없는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매일여나 오매항일을 추구하는 것, 또는 오매일여를 따지는 것 자체가 모두 망상에 지나지 않으므로 부질없이 망상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망상이 끝나면 오매일여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매일여가 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참구하면 깨닫게 되고 깨닫고 나면 오매일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저절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해 스님 역시 향시랑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내 법문을 연심(緣心, 번뇌심·분별심)으로 듣는다면 이 법(가르침)도 연심(분별심)에 불과하다’라고 하였고, 또 ‘지극한 사람은 꿈이 없다(至人無夢)’는 말은 유무(有無)의 무(無)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의 분별심을 떠난 ‘무’입니다. 생시나 꿈이나 모두 번뇌 망상입니다. 그러므로 부질없이 꿈과 현실을 분별하지 마십시오.” <계속>

■ 윤창희 민족사 대표

## 대해 스님 “잠 잘 때도 화두 놓지 않아야 진정한 깨달음” 원오 선사 “오매”를 분별하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망상”

서는 원래의 뜻과 달리 해석하여 화두를 들고 있는 상태 즉 참구하고 있는 상태가 실제로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똑같아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낮에는 물론이지만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생생하게 화두를 참구하는 일여(一如)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깨달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매일여가 되지 못하면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매일여’ ‘오매항일’ ‘오매상일’ 또는 ‘몽교일여’라는 말은 언어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오매를 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라.’ ‘오매에 대하여 분별심을 갖지 말라.’ ‘분별하면 망상이다.’ 또는 ‘일심으로 간절히 참구해야 한다’는 의미의 오매일여가 이와 같이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대로 등장한 것은 근래의 일입니다.

오매일여에 대하여 그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근래는 성철 스님께서 지으신 <선문정로>와 <백일법문>

씀하고 있습니다.

몽산 화상 이전에 오매일여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했던 스님은 간화선을 대성시킨 대해 선사입니다. 대해 선사는 당시(송대) 호조(戶曹)에서 시랑 벼슬을 맡고 있던 향시랑(向侍郎)에게 보낸 편지<서장> 향시랑(向侍郎) 장)에서, 몽교일여 즉 오매일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습니다.

“나도 36세 때에 오매일여의 문제를 가지고 스승 원오 선사께 여쭙 적이 있습니다. 내가 스승께, ‘낮에 깨어 있을 때는 부처님 말씀대로 잘 준수했는데(모든 것은 다 환영으로 관찰함), 꿈속에서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꿈에 타인이 흥기를 가지고 저를 찌르려고 하거나 또는 악인들로부터 쫓기게 되면 공포에 떨니다. 꿈은 허망한 것인데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고 있으니 이레가지고서 죽을 때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깨달음 여인들의 수행법

# 통찰지 닦아 깨달음 증득

## 19 담마디나 장로니

<증일아함경>에 의하면 담마디나(Dammadinna) 장로니는 부처님 당시에 설법이 제일 뛰어난 비구니였다. <법구경>과 <장로니계의 주석> 등에 기록된 ‘설법제일 비구니’ 담마디나의 구도기를 요약하면 이렇하다.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자하의 귀족인 위사카(Visakha)는 국왕 빔비사라와 늘 불교의 진리에 대해 토론하고 좌선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위사카의 아내 담마디나는 남편으로부터 가슴이 내려앉는 말을 들었다.

“나는 오늘부터 세속적인 일은 하지 않을 것이오. 당신과의 잡자리도 끊을 것이오.”

남편의 말을 듣고 난 아내는 매우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

“당신이 수행에만 매진하겠다는 생각이

바뀔 수 없다면 저도 차라리 출가하겠어요.”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듣고 남편은 오히려 반가웠다.

“참으로 지혜로운 생각이오. 국왕과 의논하여 여승원으로 들어가도록 해주겠소.”

그녀는 이렇게 하여 비구니가 되었다. 담마디나는 비장한 각오로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에서 수행에 전력을 다했다. 그녀는 낮은 경계를 더득한 후 좀 더 높은 경계를 얻기 위해 통찰지(panna, 慧, 辨)를 키워 나갔다. 타고난 그녀의 지혜로 오래지 않아 아라한의 지위에 올랐다.

어떤 번뇌와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경계를 얻은 그녀는 다시 도시로 나왔다. 이제는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담마디나가 도시로 내려왔다는 소문을 듣고 한 남편 위사카가 찾아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심성의 일념개발과 일념을 더욱 증진시켜가기 위해서 마음이 일어나고(生) 사라지는(死) 현상에 밀착 집중시키도록 으뜸가는 노력을 통하여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위사카는 담마디나가 높은 경지에 도달해 있음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

“스님, 열반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도반님은 물어서는 안 될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열반은 생각으로는 미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존을 찾아뵙고 다시 질문하십시오.”

그러자 위사카는 부처님께 다가가서 자신과 담마디나 사이에 문답한 것을 모두 말씀드렸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답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위사카여, 만일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다면 나 역시 담마디나와 똑같은 말을 하였을 것이다.”

이때 부처님은 담마디나를 이렇게 칭찬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현재에도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빈손으로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성자라 부른다.”

경전에 따르면, 담마디나 장로니는 통찰지를 체득하는 위빠사나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바른 통찰지는 오직 주의 깊게 알아차림(sati) 또는 비추어봄(照見)으로써 얻어진다. <마하와경(Sutta Mahava)>의 주석서에 의하면 “몸(身)과 느낌(受)과 마음(心)과 마음의 대상(法)의 명상대상을 가운데서 어느 것도 관찰하지 않으면 성스러운 도를 관통하는 지혜, 통찰지의 개발은 없다”고 하였다. 대소승의 모든 수행방편 가운데 마음챙김이나 관(觀)이 없는 수행법은 불교수행이 아니다.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 정(定)과 혜(慧)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굴러야, 또렷또렷(惺惺)하고 요고요(寂寂)한 붓다의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는 것이다.

담마디나 장로니가 위사카에게 말했듯이, 열반의 상태는 언어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오로지 직접 증득하는 수밖에 없다. 누구나 가진 ‘깨달음의 성품(覺性)’은 언어도단(言語道斷)·말길이 끊어지다(行處滅)하고 심행처멸(心行處滅)·마음 갈 곳이 없다(無)한 것이라는 선종의 강조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김성우 기자

## 신행게시판

●대중사 초의 스님 ‘선다일여’=해남 대중사가 초의 스님의 다도법을 배우며 자신을 내려놓는 ‘선다일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4박5일간 진행되는 ‘선다일여’는 5월 28일~6월 1일, 18~22일, 7월 30일~8월 3일, 6~10일 마련된다. ‘선다일여’는 <통다승> 강의, 차원따기, 차우리기, 제다 실습, 차명상, 들치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8월 12~17일에는 5박6일간 초등학교를 위한 다도아카데미 수련회도 개최된다. (061)534-5501

●능인선원 신묘장구대다라니108독 철야정진토어를 능인선원이 5월 31일 밤 10시부터 대법당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철야정진을 봉행한다. 회향은 일요일 새벽 2시 30분. 동참비는 1만원이다. 능인선원은 매일 마지막 토요일에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철야정진을 계속해 오고 있다. 1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02)577-5800

●자광사 탄허 스님 열반재=대전 자광사가 5월 28일 탄허 대중사 열반재를 봉행한다. 근대 최고의 대강백 탄허 대중사 열반재는 오전 10시 조사전에서 열린다. (042)822-9220

●흥국사 금강거사법회 성지순례=고양 흥국사 금강거사법회가 5월 25일 성지순례를 떠난다. 서산 부석사, 간월암, 천장사, 개심사 등을 돌아볼 이번 성지순례는 고봉 선사, 만공 선사의 발자취를 따라 선사들의 수행사찰을 탐방할 예정이다. 동참금은 3만원. (02)381-7970

●법암사 삼천불전 점안법회=대구 법암사가 1만불, 10만불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인 1원불 모시기’ 불사와 함께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 삼천불전 점안법회를 봉행한다. 5월에는 31일 오전 10시 삼천불전에서 정무 스님을 증명법사로 점안법회를 개최한다. (053)766-3747

●봉선사 영산재=남양주 봉선사가 6월 8일 단오를 맞아 영산재를 봉행한다. 조계종에서 가장 오래된 동주 원명 스님 주재 하에 조계종이수자, 전수자들이 모여 여법하고 장엄하게 모실 예정이다. 영산재는 오전 9시~오후 5시 봉행되며 동참금은 3만원이다. (031) 527-1951

**아빠따 코스**  
**다들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빠따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상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빠따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 필름